

새봄 지역화단 亞 현대미술 큰잔치

최근 미술 시장의 큰 변화는 해외 작가의 전시회를 국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새 봄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평소 접하기 힘든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 이들 전시회는 거장들의 불복스터전과 달리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미술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추상 미술 그룹 '에쁘르'회는 보성군과 함께 2천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4월1~6월30일까지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작가들을 초대하는 '국제현대미술 특별기획'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 대표작가 40여명과 국내 작가 4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다.

대원사 벚꽃길에 한국관광공사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보성군립 미술관인 백민미술관을 중심으로 벚꽃과 전시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 잔치'로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개막식, 시상대회 등이 함께 열린다.

나인갤러리는 오는 13~22일까지 인도네시아 구스먼 헤리아디(Gusmen Heriadi), 토미 윈드라(Tommy Wondra)의 2인전을 마련한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조상인 '미남카바우족'의 철학과 고유 색깔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스먼 헤리아디는 '잠 (Sleep)'와 '탕궁 자왈 (Tanggung Jawab)'의 작품을 통해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을 담았다. 토미 윈드라는 즉흥적인 감정 변화를 바위와 로프를 이용해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무등갤러리도 5일까지 중국의 신예작가 만타오(26)의 개인전인 '만타오의 사랑'전을 갖는다. 만타오는 중국의 현대 미술을 이끌고 있는 베이징어안학원 중국화과를 졸업한 뒤 유화, 판화, 드로잉 등 여러 매체를 이용해 초현실적인 요소를 갖춘 풍상적이며 사회 고발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다.

보성 백민미술관에서 5국 80명 기획전

나인·무등갤러리 亞·중국 작가전 해외작가 전시회 잇따라

국제 미술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현대 미술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은 오는 9월 대만 작가 30여명의 초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비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국립미술관과 작가교류협약을 체결해 이뤄지는 전시회이며, 작가 선정과 기획 등은 대만 측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오는 9월5일부터 3개월간 특별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 이외에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만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을 상호 교류해 선보이는 교류전 등도 준비하고 있다.

시립미술관 박지택 관장은 "세계 무대에서 아시아 젊은 작가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지역에서도 이들 국가의 전시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3일 중국 신예작가 만타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무등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화려한 휴가' 세트장 화려한 부활



사이더스FNH서 인수...내년부터 5·18 30주년 기념영화 촬영

지난해 10월 재정 문제로 잠정 폐쇄됐던 영화 '화려한 휴가' 세트장(사진)이 5·18 관련 영화 촬영장으로 활용된다.

국내 최대 영화사 중 하나인 사이더스FNH는 3일 영화 '화려한 휴가' 제작사인 기획시대와 영화 세트장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보수 작업을 거친 뒤 영화촬영장으로 본격활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주를 방문한 사이더스FNH는 차승재 대표가 기획시대 유인택 대표와 세트장 양도 양수에 대해 구두합의했으며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의 계약이 완료되는 15일전까지 서류 작성을 마치기로 했다.

기획시대가 2006년 광주 북구 오동동 일대 5만 6천여㎡에 30억 원을 들여 제작한 '화려한 휴가' 세트장은 폐쇄 전까지 20만명의 관객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었다.

현재 5·18 기념재단과 함께 2010년 개봉을

목표로 5·18 30주년 기념영화를 제작중인 사이더스FNH는 이 세트장을 활용,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화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5·18 기념영화는 현재 시나리오 초고가 나온 상태다.

또 '괴물'을 제작한 영화제작사 청어람은 울여부터 강풍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5·18 관련 영화 '26년'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세트장 내 철골 지원을 계속하고, 토지공사와 부지 사용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등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화북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세트장 부지는 울초 광주 과거원 확보 개설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당분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 장기 임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을 보인다. 한편 세트장의 일반 공개 여부와 시점 등 세트장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요일은 미술관 가는 날' 첫 행사 '광주시립미술관 5일 '작은 음악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이 매주 수요일을 '미술관 가는 날'로 정하고, 첫 행사로 5일 밤 7시 '시인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연다. 시립미술관은 최근 매주 수요일에는 미술관의 개관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바리톤 염중호, 소프라노 노연선, 피아노 김현진 씨가 가곡과 클래식을 들려주며, '광주오카리나양상발' 이상미 단장의 감미로운 오카리나 연주가 곁들여진다. 또 '김금옥 벨리엔스' 김금옥 단장의 춤사위와 방송국의 노래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정선아씨의 구성진 노래 공연도 마련됐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5시30분 이후에 입장하면 전시회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립미술관은 매주 수요일 개관시간 연장에 맞춰 작은 음악회,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열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물관협회 산하기구

한국학예연구위원회 창립

전국 국·공립·사립박물관 학예계 종사자들의 권익 신장과 공동연구 등을 표방하는 '한국학예연구위원회'(The Society of Korean Curators)가 3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회장 배기동)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이 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박물관이며, 박물관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학예연구위원의 역할"이라며 "학예연구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박물관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예연구위원회는 박물관협회가 위임한 사업도 수행하게 된다. /연필뉴스

대학생 미디어교육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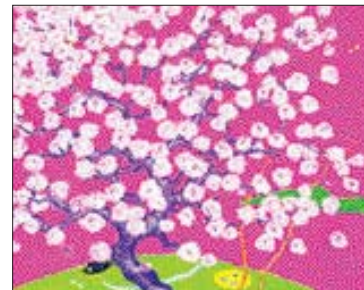
8일까지 참가자 모집

광주시청미디어센터는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wing + wing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젊은 그대, 영상으로 말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방송 실무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 기획에서부터 구성, 촬영, 편집 등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제작·과정을 강의하며 수강생들은 직접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구성안 작성하기, 촬영문법과 구도, 편집의 이해와 활용 등이며 손광우(KBS PD) 등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13일부터 총 10차례, 매주 목요일(오후 7시~10시) 열리며 접수마감은 8일이다. 문의 062-650-03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재현·정상섭씨 日 화단 큰 호평



주재현 작 '공간속으로 여행'



정상섭 작 '매화 비람'

NAAF 출품작 대부분 판매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국화가 주재현씨와 서양화가 정상섭씨가 최근 일본 무대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열린 '북동아시아 아트페스티벌(Northeast Asia Art Festival 2008(이하 NAAF))'에 출품한 작품 대부분을 일본 현지 컬렉터에게 판매한 데 이어 국내의 아트페어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NAAF는 한·중·일·북한 4개국 작가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주씨는 '공간 속으로' 시리즈 7점을 출품했고, 정씨는 '꿈꾸고난 후에' '꽃을 위한 아다지오' 8점을 내보내 대부분 판매했다.

이들은 오는 5월16일 NAAF에 참여했던 한국작가 100명 중 50명만을 선발해 부산에서 열리는 NAAF 국내 아트페어에도 초대됐다.

또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베이징아트페어 등에도 나란히 참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겨볼 시간 보냅니다 Happy Time 영화안내

<p>메가박스 구.런던약사거리 ☎061544-0600</p> <p>M관 추격자-디지털 (18세) / 비보 (12세) 최고급관 2관 추격자-디지털 (18세) 3관 점퍼 (15세) 4관 데스노트-새로운시작 (15세) 5관 추격자 (18세) / 비보 (12세) 6관 추격자 (18세) / 쿵푸당크 (15세) 7관 랩보 (18세) 8관 스파이더워킹의 비밀 (전제) / 워 (18세) 9관 밴티지포인트 (15세)</p> <p>▶점프 무료팝콘 행사 종료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점퍼 (15세) 2관 어른먼트 (15세) 3관 비보 (12세) 4관 3.10투유마 (15세) 5관 밴티지포인트 (15세) 6관 주노 (12세) 7관 추격자 (18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옥외 주차장 300대 * •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원도시영영화시영 • 예매: www.joycoco.com / 1588-7941 컬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트시어) 남평점 (무역회관 뒷편)</p> <p>1관 데스노트 : 새로운시작 (12세) 2관 어른먼트 (15세) / 스파이더워킹의 비밀 (전제) 3관 쿵푸당크 (15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사랑보다 황금 (15세) 6관 비보 (12세) / 점퍼 (15세) 7관 점퍼 (15세) 8관 워 (18세) 9관 랩보4-리스트블러드 (18세) 10관 밴티지포인트 (12세)</p> <p>* 호남 최대 주차장 * 예매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성명현영관 2관 상영 (1시간 20분) ~ 1년</p>	<p>새로운 영화시영 • www.cinus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전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추격자 (18세) 1관 점퍼 (15세) 2관 밴티지 포인트 (15세) 3관 쿵푸당크 (15세) 4관 랩보4 - 리스트 블러드 (18세) 5관 어른먼트 (15세) 5관 데스노트 L (15세) 7관 비보 (12세)</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권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북자 사무시(오전8시~개방시) ARS 전화예매 1544-0070</p>	<p>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p> <p>1관 쿵푸당크 (15세) 2관 사랑보다 황금 (12세) 3관 비보 (12세) 4관 밴티지 포인트 (15세) 5관 추격자 (18세) 6관 랩보4 (18세) 7관 점퍼 (15세) 8관 데스노트 (15세) 9관 워 (18세)</p> <p>• 라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관람객 편의를 위한 전용휴구 마련 • 편의예매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새로운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o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추격자 (18세) 2관 점퍼 (15세) 3관 데스노트 L (15세) 4관 비보 (12세) 5관 랩보4 (18세) 6관 쿵푸당크 (15세)</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